

MZ세대 ‘골프돌’ 투입, 골프예능이 젊어진다

‘버디보이즈’, 닉쿤·이특·신동 대결 OTT ‘버디버디’ 최강창민·민호출연 온라인선 입고나온골프웨어도 화제골프 브랜드도 모델로 아이돌 기용

골프 소재 예능프로그램이 확 달라졌다. 지난해 한 차례 방송가를 휩쓸고 가면서 시청자 흥미와 관심이 낮아진 사이 중장년층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20~30대 시청자를 새롭게 겨냥하고 있다. 다양한 포맷의 변화는 물론 베테랑 방송인을 주로 캐스팅했던 것과 달리 최근 아이돌 스타들을 내세워 눈길을 끈다. 감염병 사태 이후 20~30대 골퍼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이 골프 업계의 ‘큰손’으로 급부상한 흐름에 주목한 것이기도 하다.

●아이돌로 ‘젊은 느낌’ 팍!

SBS ‘편먹고 공치리4: 진검승부’(편먹고 공치리4)가 대표적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방영한 시즌1~3에서는 방송인 이경규, 야구스타 이승엽 등이 골프 대결을 펼쳤다. 최근 방송을 시작한 시즌4는 연예계 실력자들의 토너먼트로 소재를 키우면서 그룹 씨엔블루의 멤버 강민혁과 이정신을 출연진에 포함시켰다. 이에 시청자들은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 “아이돌 출연자가 나와 기존보다 젊은 느낌이 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JTBC ‘버디보이즈’,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즌 ‘창민호의 버디버디’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골프 열풍이 불면서 관련 예능 제작진과 의류업체들이 아이돌 그룹을 내세우고 있다. 시즌의 ‘창민호의 버디버디’에는 동방신기 최강창민·사이니 민호가 출연했고, 아스트로의 차은우와 걸그룹 트와이스는 각각 골프웨어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발탁됐다.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제공 | 시즌·크리스에프엔씨

등도 아이돌 스타들을 내세웠다. 10월 방송하는 ‘버디보이즈’는 2PM의 닉쿤, 슈퍼주니어 멤버인 이특·신동 등이 골프 대결을 하는 내용이다. 동방신기 최강창민과 사이니 민호는 최근 공개된 ‘창민호의 버디버디’에 사이판으로 골프 여행을 떠나는 과정을 담았다.

온라인상에서는 이들이 개인 SNS를 통해 공개해온 골프 영상부터 방송에 입고 나온 골프웨어도 화제를 몰고 있다. 이에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 제작진도 이들을 게스트로 섭외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 브랜드도 아이돌 주목

방송가에서는 감염병 사태 이후 골프에 대한 관심이 20~30대에까지 확장되면서 관련 소재가 이들 세대에도 소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빅데이터플랫폼 회사 모바일인덱스가 최근 발표한 ‘2022 골프 시장 분석리포트’에 따르면 2021년 12월에서 올해 5월 사이 20~30대 골퍼 비중은 24.2%로, 17.6%였던 지난해 동기 대비 6.6%가량 상승했다. 모바일인덱스 측은 “최근 이들 세대가 40대와 함께 전체 골프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변화는 최근 광고시장에서도 확인된다. 다양한 골프웨어 브랜드가 그룹 아스트로의 차은우, 걸그룹 트와이스, 신인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을 모델로 잇달아 기용했다. 이들이 각종 패션 화보로 선보인 일부 제품은 각종 SNS에서 인기를 끌면서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

스포츠동아 2022년 9월 30일 금요일 13

연예뉴스 HOT 5

스트레이 키즈, 미니음반 200만장 판매



스트레이 키즈

그들 스트레이 키즈가 새 미니음반 ‘맥시던트’(MAXIDENT)를 통해 ‘더블 밀리언셀러’(단일 앨범 판매량 200만 장 돌파)에 등극했다. 29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10월 7일 발매되는 음반의 선주문량이 224만 장을 돌파했다. 스트레이 키즈는 지난해 발매한 정규 2집 ‘노이지’(NOEASY)와 올해 3월 발표한 미니앨범 ‘오디너리’(ODDINARY)로 2연속 밀리언셀러가 됐다. 멤버 방찬, 창빈, 한으로 구성된 그룹 내 프로듀싱 팀 ‘스리라차’가 이번 음반의 타이틀곡 ‘케이스 143’ 제작에 참여했다.

강타, SM 주식 2300주 팔아 8100만원 차익



강타

가수 강타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SM)의 주식을 매도해 거액의 차익을 거뒀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전날 강타는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SM 주식 2300주(1억7940만 원어치)를 장내 매도했다. 주당 매도가는 7만6200원~7만9500원이다. 이는 SM 비등기 이사로 재직 중인 강타가 7월 스톡옵션 6000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며 주당 4만2640원에 매수한 물량이다. 이번 거래로 8100만 원의 차익을 실현했으며 수익률은 83%에 달한다. 매도하지 않은 3700주를 포함하면 잠재적 시세 차익은 1억72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예대, 남산드라마센터서 60돌 행사

서울예술대학교(서울예대)가 10월 3일 남산 드라마센터 대극장에서 창학 60주년 기념행사 ‘원네스’(Oneness)를 개최한다. 기념행사는 이머시브(관객참여형) 공연인 ‘작은 숲, 나누는 삶’을 시작으로 서울예대 미래비전선포,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 리셉션 순으로 진행된다. 문화예술계의 인사들과 학교법인 동랑예술원과 대학 관계자, 동문, 지역 인사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참여한다. 서울예대는 “이번 행사는 ‘우리 문화 예술의 세계화’라는 대학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대학 구성원 및 국내외에 알리는 의미는 갖는다”고 밝혔다.

골든차일드 최보민, 안면 골절 활동 중단



최보민

그들 골든차일드의 멤버 최보민이 안면 골절로 활동을 중단한다. 소속사 올림엔터테인먼트는 29일 “최보민이 전날 오후 개인 스케줄로 골프 연습 중 다른 사람이 연습하다 휘두른 우드클럽에 안면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곧바로 응급 치료와 정밀 검사를 진행했고, 수술 일정을 조율 중이다. 수술 이후 일정기간 재활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당분간 활동을 멈추고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예정이다. 최보민이 소속된 골든차일드는 2017년 10인조로 데뷔했으며 지난해 미니 6집 ‘아우라’를 발매했다.

정이랑 주연 ‘아네모네’ 태극서 감독상



‘아네모네’ 포스터

개그우먼 출신 배우 정이랑이 주연한 영화 ‘아네모네’(감독 정하용)가 해외 시상식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29일 태국 국제필름 페스티벌 측은 ‘아네모네’가 최우수 장편 영화 부문에서 감독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영화는 전직 격투기 선수인 정이랑이 복귀 당점의 꿈을 쫓아 후 실재로 복권에 당첨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정이랑은 “큰 상을 받아 영광스럽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2005년 S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SNL코리아’ 시리즈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구르미 그린 달빛’, ‘보그맘’ 등 다양한 드라마에도 출연했다.

‘정직한 후보2’·‘공조2’, 속편들도 흥행 훈풍

나란히 박스오피스 1,2위 OTT·VOD선 1편도 인기

영화 ‘정직한 후보’와 ‘공조’ 시리즈가 스크린과 안방극장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28일 개봉한 ‘정직한 후보2’와 개봉 3주차를 맞는 ‘공조2: 인터내셔널’(공조2)이 박스오피스 1·2위에 오른 가운데 이에 힘입어 각 전편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VOD 서비스를 통해 새롭게 인기를 얻고 있다.

29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전날 개봉한 ‘정직한 후보2’가 7만2878명을 모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7일 개봉 이후 줄곧 정상을 지켜온 ‘공

조2’는 이날 하루 6만6345명을 동원해 2위로 밀렸지만, ‘정직한 후보2’와 불과 6533명 차이로 여전히 식지 않는 인기를 과시했다.

이처럼 ‘정직한 후보2’와 ‘공조2’는 박스오피스 1위와 2위 자리를 놓고 다투며 속편 영화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범죄도시2’가 1편의 누적 688만 관객의 2배에 달하는 1269만 명을 모아 감염병 사태 이후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동원했다. 또 2017년 개봉작 ‘명량’의 속편 격에 해당하는 ‘한산: 용의 출현’도 725만 명을 모아 여류 대작 중 최고 성적을 냈다. 1986년 ‘탑건’의 속편 ‘탑건: 매버릭’도 816만 관객을 불러 모았다.

속편의 극장 흥행세에 힘입은 ‘정직한 후보2’와 ‘공조2’가 1편도 안방극장에서

인기다. 29일 IPTV·디지털케이블TV·VOD 주간 이용 순위를 집계하는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정직한 후보’의 8월 이용건수가 지난달보다 82.4%나 증가했다. 9월에는 무려 1118.1%로 급증했다. 넷플릭스 영화 순위도 급상승해 전체 2위에 랭크됐다. ‘공조’도 왓차와 티빙에서 각각 ‘많이 본 영화’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한 영화관계자는 “IPTV·VOD 서비스뿐 아니라 OTT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과거 영화에 대한 접근이 더욱 쉬워지면서 속편 영화 개봉을 전후해 1편을 보려는 시청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속편과 전편이 동시에 화제를 모으면서 극장과 2차 판권시장에서 원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박민영, 의혹의 재력이 남친과 열애설 하루만에 이별

A씨 상장사 인수자금 출처 논란 “많은 금전적 제공, 사실 아니다 언니도 사외이사 사임의사 전해”

‘열애설’에 맞닥뜨린 배우 박민영(37)이 후폭풍을 맞고 있다. 4세 연상의 사업가 A씨와 교제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29일 A씨의 사업과 관련한 의구심이 확산하면서 박민영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방송을 시작한 주연작인 tvN 수목드라마 ‘월수금화목토’에까지도 불뚱이 튀고 있다.

29일 한 매체는 “A씨가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숨겨진 주인”이며 관련 계열사를 비롯한 코스닥 및 코스피 상장사 등 4개 업체의 실소유주라고 보도했다. 이

어 A씨가 이를 인수하는 데 들인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여기에 더해 4개사 가운데 한 곳에 박민영의 친언니가 올해 4월 사외이사로 등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과 궁금증이 커졌다. 해당 업체의 대표이사는 A씨의 여동생이 맡고 있다고 하다.

이에 대해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박민영이 상대방과 이별했으며 그로부터 많은 금전적 제공을 받았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언니인 박씨도 사외이사 사임 의사를 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소속사의 입장 표명이 늦어지면서 일부 시청자들은 ‘월수금화목토’의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 관련 의혹을 해명하라 요구하고 나섰다. 한 시청자는 “다른 배우들과 스테

프가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21일 4%였던 시청률도 28일 3.8%로 떨어져 드라마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박민영이 기존의 이미지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박민영은 극중 비혼주의 남성들과 계약결혼하는 이야기를 도도하면서 푹 부러진 캐릭터로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tvN ‘그녀의 사생활’, ‘김비서가 왜 그럴까’ 등 전작에서 선보인 이미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혹평을 받으면서 초반 화제몰이에 실패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로맨틱코미디 장르에 치중해 별다른 연기 변신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이미지도 고착된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영화 ‘정직한 후보2’와 ‘공조2: 인터내셔널’(위부터)이 최근 극장에서 힘을 발휘하는 가운데 각 영화의 시즌 1까지 새삼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 | NEW-CJ ENM



배우 박민영이 주연하는 tvN 수목드라마 ‘월수금화목토’의 한 장면. 사진제공 | tvN